

열왕기상 6.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 (왕상 6:1-38)

들어가기

열왕기상 6 장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지 4 년만에 아버지 ‘다윗’의 유업을 이어받아 성전 건축을 시작한 후, 총 7 년 6 개월만에 드디어 이스라엘 최초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게 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 장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짓게 하신 최초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의 규모와 장식이 어떠했는지를 대략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 예루살렘 성전의 외형적 구조. (1-10 절)

1)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이 시작된 날은 언제인가? (1 절)

- 출애굽 사건이 있던 지 480 년이 된 해 -> ‘솔로몬’이 왕이 된지 4 년이 된 해 ‘시브 월’
- ‘시브 월’ 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달인 4,5 월을 의미

➤ 참고: 성경학자들 - 1 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함

- ‘솔로몬’ 왕 4 년은 대략 B.C.966 년 경으로 생각할 때, 본 절을 기준으로 480 년을 더하여 출애굽 시기를 잡는다면 대략 B.C. 1446 년경으로 추측하게 됨.
- 여기서부터 다시 시기를 거슬러 올라 아브라함 시대까지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의 연대를 확정할 수 있게 됨.

2) 예루살렘 성전의 외형적 구조는 어떠했는가? (2-10 절)

➤ 참고: 한 규빗은 성인 팔꿈치에서 손 끝까지의 길이를 표준으로 해서 보통은 약 45.6cm 로 잡았는데, 성전 건축에는 이 보다는 좀 긴 규빗을 사용했다고 보면 약 53cm 로 추정.

- ①. 성전 전체의 세로 길이는 60 규빗 = 약 27-32m
- ②. 성전 전체의 가로 길이는 40 규빗 = 약 18-21m
- ③. 성전 전체의 높이는 30 규빗 = 13-16m
- ④. 성전 좌우 벽에 창틀 있는 불박이 창문이 설치됨
- ⑤. 성전 좌,우,뒤 외벽에 다시 벽을 쌓고 3 층으로 된 다락을 설치함
 - 총 30 개의 다락이 설치됨 (겔 41:6) 을 만들을 돌아 3 층
 - 다락의 용도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성전 물품을 보관하는 거룩한 방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쉬거나 일을 볼 수 있는 방들로 구분되어 사용되었음.

3)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두 가지!!

- ①. 성전의 모든 크기, 구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확하게 지시하신 것! (대상 28:11-19)
 - 따라서 ‘솔로몬’이 더 크고 화려한 성전을 충분히 지을 수도 있었겠으나, 그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가지도 벗어나지 않게 지었다는 것!

②. 7 절을 주목할 것!

‘…,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 곧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할 때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셨다는 것!
- Why?

2.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11-13 절)

1)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진행 중인 ‘솔로몬’에게 이전에 약속하셨던 말씀을 다시 재확인 시켜 주셨습니다.

- ①. 주의 계명과 법도를 그대로 잘 지켜 행하면, 아버지 ‘다윗’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
 - ②.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실 것!
- >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열왕기상 3 장 14 절에서 하신 말씀이었다는 것!

- 그럼 왜 하나님은 지금 성전을 건축 중인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하셨을까?
 - 긍정적인 해석:
 - 부정적인 해석:

3. 예루살렘 성전의 내부적 구조와 장식. (14-38 절)

1) 성전 내부의 장식

- ①. 모든 벽과 천장, 바닥을 다 백향목 널판으로 덮어 돌이 보이지 않게 함.
- ②. 내부의 모든 바닥은 다시 백향목 널판 위에 잣나무 널판으로 덮음.
- ③. 좌우 백향목 벽에 박과 핀 꽃을 새겨 장식하게 한 후 그 위를 금으로 덮음.

- 이런 내부 장식은 당시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의 다른 신전들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
 - 건축 학자들: 이는 가장 최소한의 간결한 아름다움을 추구한 동시에 그 무엇보다도 소리의 자연스러운 전달을 중요시한 방음처리를 위한 구조!!
 - 결국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성전은 당시 우상들을 숭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걸 모습만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이 아니라, 친히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간이 직접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허락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영적인 만남의 장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

2) 성전 내부의 구조

- ①. 성전 내부를 백향목 널판을 사용해 두 부분으로 나누어 막게 함!
 - > 곧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하게 함.

- ②. 지성소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20 규빗으로 만듦.
-> 곧 대략 10m X 10m X 10m 의 정육면체 구조가 되게 함.

➤ 이것은 절대적 완전성을 의미! -> 곧 완전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으로 한 점도 흐트러짐 없는 완전한 예배/ 완벽한 예배가 드러져야 함을 의미!!

- ③. 지성소 안에는 감람목으로 만든 두 그룹을 세움.(그룹은 천사를 상징)
-> 크기는 높이가 2 규빗, 각 날개가 5 규빗
-> 바깥쪽 날개는 지성소 벽에 달고, 안쪽 날개는 서로의 날개 끝이 닿게 함!
-> 이 두 그룹의 얼굴은 언약궤를 보게 하고, 언약궤는 두 날개 중앙에 위치하게 함!
-> 모든 것을 다 금으로 덮음.

➤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천사가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닫도록 하고, 또 우리의 예배가 천군천사가 함께 하는 예배임을 생각하게 함.

- ④. 성소의 모든 벽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조각하여 장식하고, 금으로 모든 벽과 바닥까지 덮게 함.

➤ 그룹들, 종려나무, 핀 꽃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동물, 식물)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함.
-> 곧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고, 그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총만해 짐을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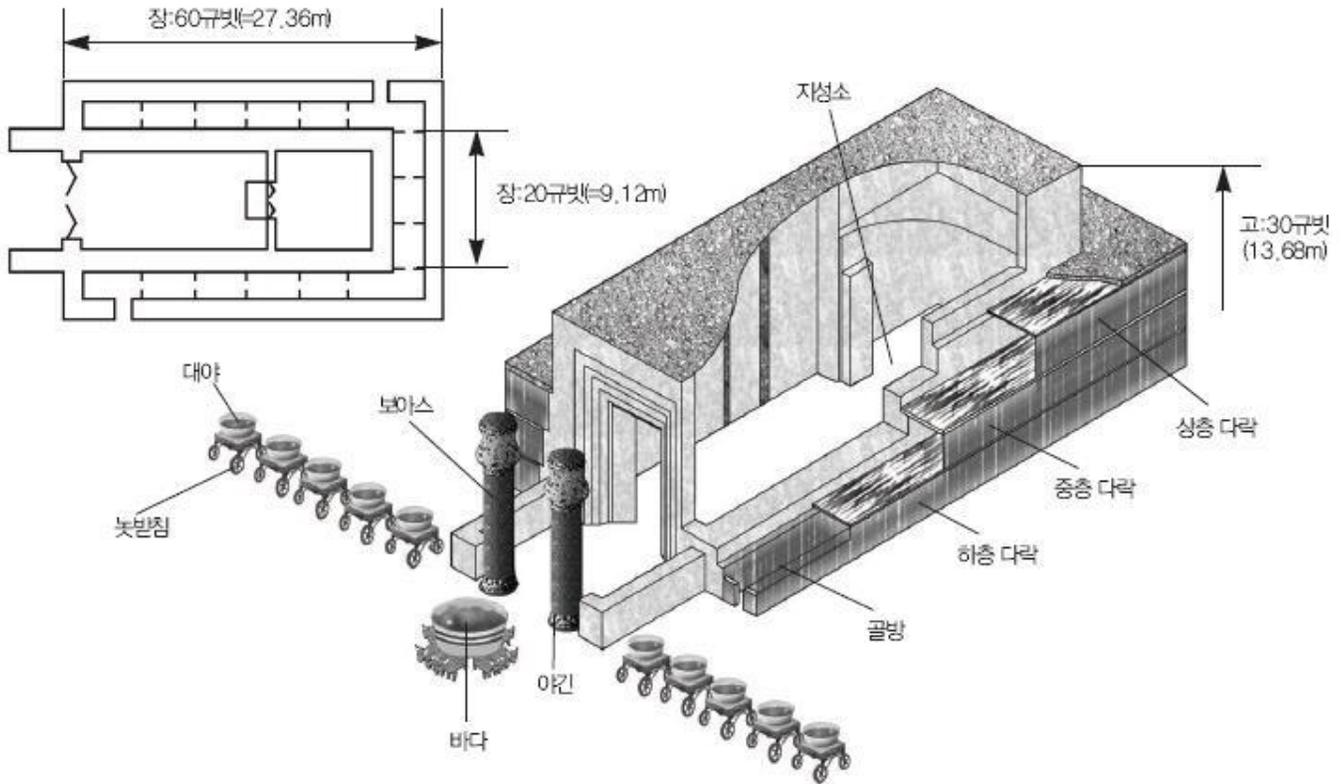
- ⑤. 그 외 잣나무로 만든 반으로 접히는 현관문 두 짝과 현관 앞에 성소로 들어오는 '보아스'와 '야긴' 이라 불리는 조각된 기둥을 양 옆에 세우게 했음.

3) 이 예루살렘 성전은 총 7년반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공하게 됨,
-> 7년 반이란 기간은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매우 빠른 시간 만에 완성된 것으로 판단!
-> 곧 많은 인력과 물질이 예루살렘 성전 공사에 동원되었음을 추측하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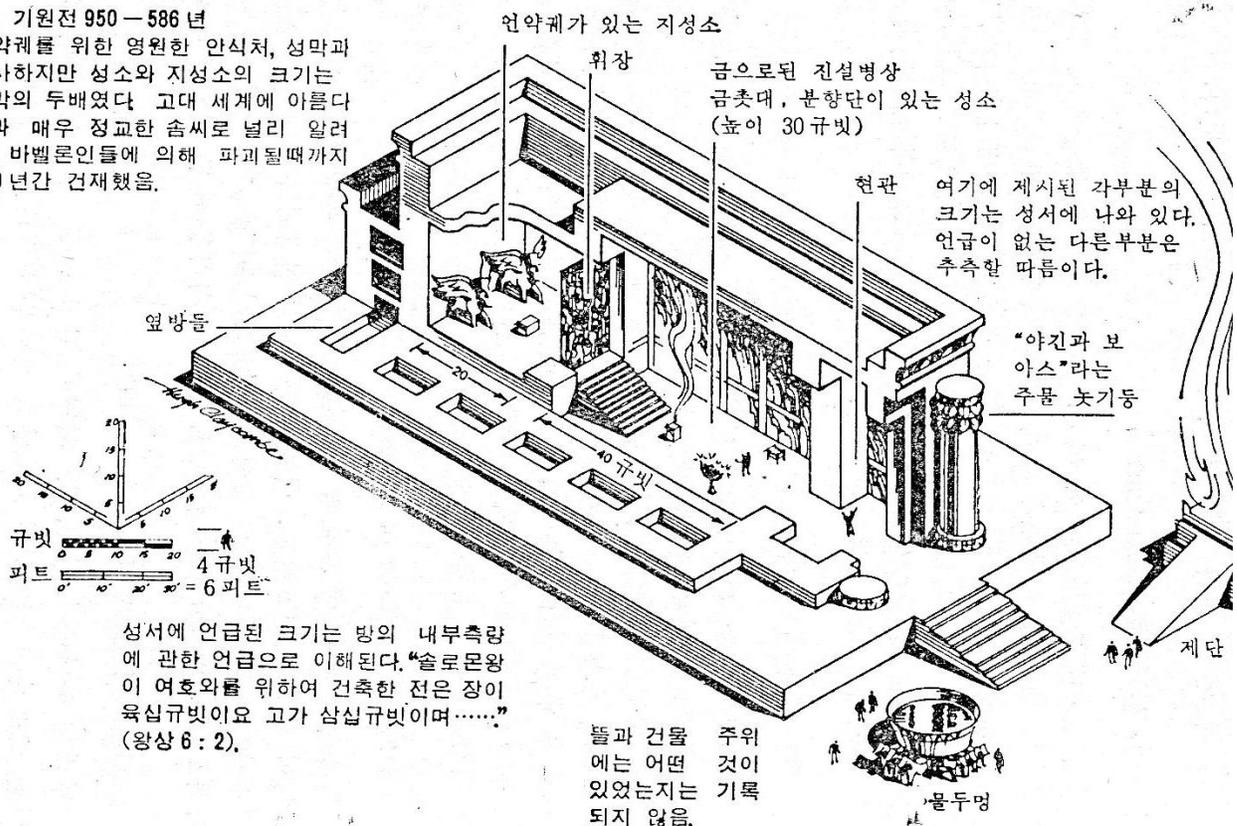
4. 참고 1.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을 비교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
성전 전체 길이 x 넓이 x 높이	40 x 20 x 15 규빗	80 x 40 x 30 규빗
지성소 길이 x 넓이 x 높이	10 x 10 x 10 규빗	20 x 20 x 20 규빗
성소 길이 x 넓이 x 높이	20 x 10 x 10 규빗	40 x 20 x 20 규빗
현관 길이 x 넓이	10 x 5 규빗	20 x 10 규빗

5. 참고 2.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 그림 자료



기원전 950—586년
 언약궤를 위한 영원한 안식처, 성막과 유사하지만 성소와 지성소의 크기는 성막의 두배였다. 고대 세계에 아름다움과 매우 정교한 솜씨로 널리 알려짐. 바벨론인들에 의해 파괴될 때까지 400년간 건재했음.



성서에 언급된 크기는 방의 내부측량에 관한 언급으로 이해된다. “솔로몬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장이 육십규빗이요 고가 삼십규빗이며…….” (왕상 6:2).

돌과 건물 주위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는 기록되지 않음.